

조선대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유재식 교수

그냥 두면 충치·잇몸 염증 유발할 수도

옆으로 눕혀지면 칫솔질 어려워 뿔은 치아 어금니 자리 이식도 신경 손상 등 합병증 주의

구강악안면외과를 내원하는 환자들 중 상당수는 “사랑니를 꼭 뽑아야 하나”라는 질문을 한다. 이는 포털 검색사이트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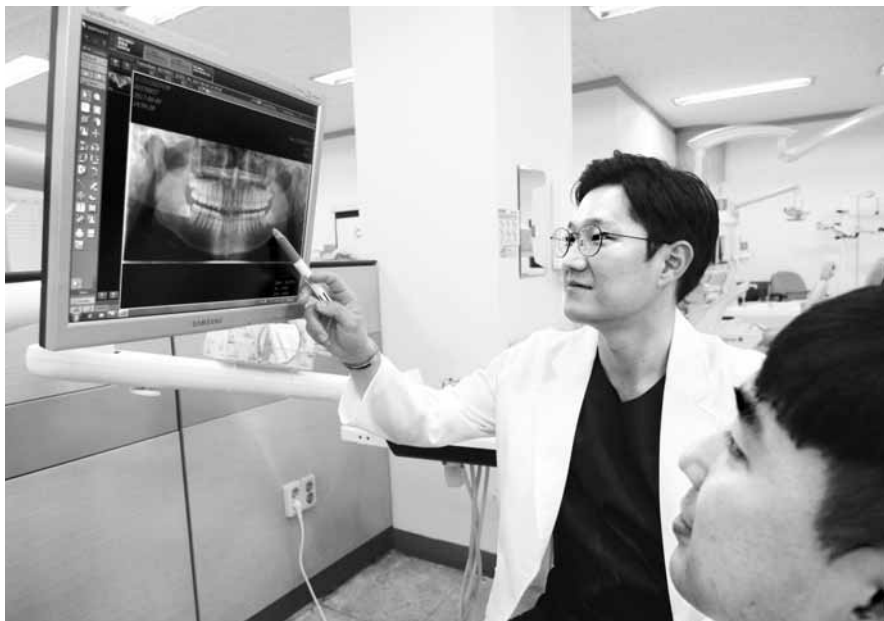
그렇다면 이 질문의 답은 과연 무엇일까? 정답은 없다. 사랑니에 대한 환자들의 궁금증 중심으로 정리해 봤다.

◇사랑니는 무엇인가요=사랑니는 치아들 중에 가장 안쪽(목쪽)에 위치한 세 번째 큰 어금니다. 사랑니의 개수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며 사랑니가 하나도 없는 사람부터 4개 모두 나는 사람까지 다양하다.

보통 18세쯤 처음 나기 시작하는데 사람에게 처음 눈물 때, 혹은 새로 이가 날 때 첫 사랑에 대한 아픔 등을 비유해 ‘사랑니’라고 명칭이 붙게 됐다고 한다. 또한 영어권 국가에서는 지혜와 함께 찾아온다고 해 ‘wisdom teeth’, ‘지치(智齒)’라고도 불린다.

◇사랑니 꼭 뽑아야 하나요=인류가 진화하면서 턱이 작아짐에 따라 제일 안쪽에서 사랑니가 맹출(지근의 형성이 진행함에 따라서 치관이 구강내에 나타나는 현상)할 공간이 없어 옆으로 누워서 맹출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사랑니의 경우 입안 깊이에 있는데다가 옆으로 누워서까지 맹출을 한다면 칫솔모가 닿기 어렵다. 이 경우 크게 두 가지 문제점



유재식(왼쪽) 조선대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가 환자에게 사랑니 발치 여부 등을 설명하고 있다. <조선대치과병원 제공>

이 발생할 수 있다. 한 가지는 앞 치아와 닿아 있는 부위에 치아 우식증(충치)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사랑니를 발치해야 한다. 사랑니 앞에 있는 두 번째 큰 어금니 역시 충치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음식 찌꺼기 등이 잘 끼여 사랑니 주변 잇몸에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다. 이를 방지할 경우 얼굴 전체가 부어오르고 오한, 발열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 경우 치아주변을 청소하고 소염진통제 등을 복용하면 다시 염증이 가라앉게 되지만 추후 또다시 염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니 발치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교정치료를 치아의 움직임 등의 제한 등이 예상될 때는

조기에 사랑니를 발거 하기도 한다.

또한 사랑니를 빼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맹출이 완료된 시점인 20대에 하는 것이 좋다. 수술시간은 간단한 경우 10분 내외다.

◇사랑니를 다른 치아 대체용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사랑니의 경우 뿌리 모양을 포함해 어금니와 비슷한 모양과 형태를 가진 경우, 사랑니 앞에 있는 큰 어금니들이 충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거를 해야 할 경우 발치와 동시에 사랑니를 이용해 그 자리에 그대로 이식할 수 있다.

이를 ‘자가 치아 이식’이라 부른다. 성공한 경우에는 임플란트 등의 비용절감 및 치료기간 단축, 자신의 치아를 이용하므로

치주인대의 존재로 인해 원래의 치아만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등 장점이 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사랑니를 이용한 ‘자가 치아 이식’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치아의 모양이나 형태가 너무 맞지 않거나(사랑니가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경우), 사랑니 자체가 우식이 깊거나 하는 등 제약이 따른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사랑니를 이용해 골 이식 재료를 만들 수 있다. 이 역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만드는 과정에 비용 및 시간이 추가된다. 사랑니를 이용한 골 이식재의 경우 현재 시판되는 많은 골 이식 재료처럼 추후에 치주염이나 심한 골소실로 인해 골 이식이 필요한 환자에게서 사용될 수 있다.

◇사랑니 뽑으면 부작용은 없나요=모든 관혈적인 수술에는 피치 못할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환자는 물론 의사 역시 걱정되는 부분이다. 사랑니 발거 역시 관혈적인 수술의 하나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항상 사랑니 발거 전에는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설명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아래쪽 사랑니를 발거하기 전에는 ‘발치 후에 신경손상 가능성이 있어서 입술 쪽 피부에 감각이 떨어져서 얼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혀 반쪽도 감각이 떨어질 수 있다’는 등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신경 손상 등의 합병증은 수술자의 잘못보다는 사랑니의 맹출 위치 자체가 하악관이라고 하는 신경 근처에 위치한 경우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버스·택시기사 뇌심혈관질환 예방사업 광주근로자건강센터 ‘고용부장관상’

광주근로자건강센터(센터장 조선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이철갑 교수)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제50회 산업안전보건주간 행사 내 ‘전국 근로자건강센터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서 버스·택시 운수종사자 건강관리 사례를 발표해 대상인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광주근로자건강센터는 광주시, 광주 택시사업조합, 광주시내버스사업조합과 협력해 시내버스 및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1200여명에 대한 뇌심혈관질환·

광주시, 광주 택시 운수종사자의 뇌심혈관 질환 예방사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함께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면서 “앞으로도 끈기있게 예방, 직무스트레스 관리 등 건강관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지역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는 2300명,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3915

명에 이른다.

버스, 택시 운전하는 운수종사자에게는 뇌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뇌심혈관질환 발생 및 악화요인으로는 흡연, 음주, 불규칙한 생활습관, 신체활동 부족 등 생활습관 요인과 장시간 노동, 교대근무, 승객과의 잦은 마찰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꼽히고 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어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철갑 센터장은 “전국 최초로 시작된 버스 및 택시 운수종사자의 뇌심혈관 질환 예방사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함께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면서 “앞으로도 끈기있게 예방, 직무스트레스 관리 등 건강관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국내 최고 고관절 명의인 윤택림 전남대병원장이 국제 특허를 받은 자신만의 고관절 수술법을 외국의 의료진에게 전수하는 라이브서지리를 시행하고 있다. <전남대병원 제공>

8개국 의료진 고관절 수술 배우러 광주 방문

윤택림 전남대병원장 시연

“세계적으로 알려진 윤택림 박사의 수술법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귀국하면 주변 동료에게도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윤택림 전남대병원장(정형외과)의 라이브 서지리(Live Surgery)를 참관한 멕시코 누에보라레도 병원의 호세 루이스 곤잘레스 로메로 박사는 “최고 수준의 선진 고관절 수술법을 직접 볼 수 있게 돼 영광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최고 고관절 명의인 윤택림 전남대병원장은 국제적으로 특허받은 자신만의 고관절 수술법을 외국의 의료진에게 전수하는 라이브서지리를 매년 2~3

회씩 시행하고 있다.

시연에는 몽골(2명)·이란(4명)·시리아(2명)·아르메니아(1명)·베트남(2명)·멕시코(4명)·인도네시아(2명)·필리핀(3명) 등 8개국서 18명의 의료진이 참관했다.

특히 중남미 멕시코와 중동지역 이란 등 지리적으로 먼 국가의 의사들도 방문해 윤택림 병원장의 세계적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이틀간 8차례의 시연을 펼친 윤택림 병원장은 근육 보존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인공 고관절 재치환술, 비구순 파열에 대한 관절경 수술 그리고 미국서 특허 받은 두부위 최소 침습법 등을 시행했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윤택림 병원장의 수술시연은 지금까지 약 30여개국에서 400여명의 의료진이 참관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대병원 협력병원 500곳 돌파

전남대학교병원은 “최근 병원 1동 로비에서 협력병원 500곳 돌파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전남대병원이 지역 1·2차 의료기관과 원활한 협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맺은 협력병원수가 500곳을 넘어선 것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4년까지 173곳이었던 협력병원은 지난 2015년 윤택림 병원장 취임 이후 2015년 316곳, 2016년 434곳으로 크게 늘었으며, 올 들어 지난달 23일 기준 500곳을 넘어 501곳을 기록하게 됐다.

전남대병원의 협력병원은 지난 5월 현재 2차 병원 259곳·1차 병원 242곳이며, 특히 2차 병원의 경우 광주·전남지역 2차

병원의 72%에 달하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광주권 263곳·전남권 194곳·전북권 20곳·제주권 11곳이며, 서울·경기권·대전·충남권·경남권 등에도 협력병원이 있다.

전남대병원 협력병원을 통해 전남대병원을 찾는 환자는 진료 및 급성기 치료가 끝나면 다시 협력병원으로 돌아가 후속 관리를 받게 된다.

한편 전남대병원 진료협력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타 병원의 진료의뢰 건수 총 6007건 중 협력병원의 의뢰건수가 5806건으로 97%를 차지했으며, 진료의뢰한 협력병원 수는 434곳 중 70%인 305곳으로 나타났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대학교병원은 최근 병원 1동 로비에서 협력병원 500곳 돌파 기념식을 개최했다. <전남대병원 제공>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남구 주월동 대로변접 병원최적합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7층건물 대지 994㎡ 건물 2,028㎡ 매매 45억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중심상권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지상1층건물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7층 대지 867.90㎡ 건물 4124.36㎡ 매매 65억 (보5억 월수익 3천9백)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 ★ [건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 (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 [고시원] 광주 동구 서석동 객실 36개 5층건물 1층커피 토지 423㎡ 건물 845.23㎡ 매매 18억 (대출7억 월수익1천3백)

사우나

- ★ [건물] 북구 두암동 지하-상6층 건물 대지 496.20㎡ 건물 2360.35㎡ 매매 35억 (보3억5천 월2천포함)
-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스포츠타운 사우나 위치좋은 건물 5,349.88㎡ 매매 85억 (상당후결정)
- ★ [건물] 북구 두암동 6층 지하-상5층 건물 위치최상 병원가능 대지 334.40㎡ 건물 990.88㎡ 매매 10억 (보1억 6백 월4천3백포함)
- ★ [건물] 광주 동구 계림동 사우나 위치좋은 지하-4층 대지 949.00㎡ 건물 827.74㎡ 매매 30억 (상당후결정)
- ★ [건물] 북구 두암동 지하-상4층 건물 대지 442.90㎡ 건물 1237.44㎡ 매매 11억 5천 (보1천5백 월1백2십만포함)
- ★ [건물] 동구 동명동 사우나 5층건물 위치좋은 대로변접 현성업종 대지 452㎡ 1,464㎡ 매매 17억 (용5억포함)

토지 추천 물건

- ★ [토지] 서구 치평동 대로변접 대지 3470㎡ 매매 65억 근린시설 스포츠타운 최적합
- ★ [토지] 광산구 송정역(KTX) 인근대로변 접 대지 1342㎡ 매매 45억
- ★ [토지] 동구 지산동 무등산관광호텔주변 카페거리 대로변접 자연녹지지역 대지 1,948㎡ 매매 27억 7천만
- ★ [토지] 전남 창평면 삼천리 계획관리구역 대지 3,041㎡ 매매 평당70만 공장, 물류창고, 주택 적합
- ★ [토지] 서구 풍암동 녹지지역 입자26,139㎡ 매매 평당7만
- ★ [토지] 북구 삼각동 1중주거지역 대지 1,326㎡ 매매 10억 조정가능 공장, 물류창고, 주택 적합
- ★ [토지]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 자연녹지지역 123,868㎡ 매매 평당5만

공인중개사 김은희 062-714-2254